

處置표지 ‘給’의 來源

박 향 란*

<目次>

I. 서론	Ⅲ. 處置의미의 비교: ‘把’와 ‘給’
Ⅱ. 處置표지 ‘給’의 來源	Ⅳ. 결론

I. 서론

여러 언어에서 ‘주다’ 동사가 문법화 되는 경우 여격표지(dative marker), 사역·허용동사(causative permission verb), 수혜표지(benefactive marker), 피동표지(passive marker), 도구표지(instrumental marker), 목표표지(purposive marker) 등으로 변하는 경향이 있다.¹⁾ 현대 중국어에서 전형적인 수여동사로 쓰이는 ‘給’은 위의 여러 용법 중에서 도구표지를 제외한 여격표지, 수혜표지, 사역동사, 피동표지 등으로 문법화 되었다. 그리고 다소 특수하게 處置표지(disposal marker)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處置란 중국어에 존재하는 특수한 용법의 하나로 보통 ‘把’, ‘將’ 등을 통해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옮기는 데 이때 목적어에 어떤 處置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²⁾ ‘給’의 處置용법이란 ‘把’가 가진 이런 기능을 ‘給’역

* 경북대학교 중어중문학과 강사

1) Huei-ling lai(2001), Heine & Kuteva(2004), K.thepkanjana, S.uehara(2008), Andy C. Chin(2011) 등 참고.

2) 處置는 王力(1958)이 《漢語史稿》에서 처음 제시한 용어로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形式上說, 它是用介詞”把“字把賓語提到動詞的前面; 就意義上說, 它

시 가지는 것을 말한다. 朱德熙(1897)는 ‘給’뒤에 오는 명사성 성분이 형식상 與事에 속하지만, 의미상 受事가 될 때 ‘給’가 處置용법을 나타낸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我給電視機修好了’, ‘我給電視機弄壞了’에서 ‘給’뒤에 오는 ‘電視機’는 의미상 동사의 受事가 되면서 處置의 대상이 된다. 현재 북경이외에 많은 방언지역에서 ‘給’가 處置용법으로 쓰인다.³⁾ 하지만 ‘주다’의미의 동사로 쓰이는 ‘給’가 어떻게 處置표지로 변화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들이 존재하며 여전히 논의가 진행 중이다.

본고는 處置의미를 나타내는 ‘給’의 來源에 대한 이전의 가설들을 재검토해 보고,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장에서는 먼저 기존 연구의 문제점을 제시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給’가 處置표지로 쓰이기 시작하는 明清시대 문헌 자료들을 살펴보고, 處置용법의 來源을 탐색해보고자 한다. 이때 ‘給’의 다양한 용법들의 선후관계를 추론해보고 이들 서로 다른 용법사이의 의미적 관련성에 대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제 3장에서는 전형적인 處置용법에 쓰이는 ‘把’字句와 ‘給’字句의 의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給’의 處置용법의 來源에 대한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II. 處置표지 ‘給’의 來源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현대 중국어에서 處置용법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는다. 먼저 직접 목적어는 이미 알고 있는 것(referential)이어야 하고, 또한 동사 성분은 상태 변화가 있어야 한다. ⁴⁾다시 말해 處置구문에서 處置표지에 의해 동사 앞으로 옮겨진 명사성 성분(NP)은 이미 앞 문맥에서 언급되었던 대상이어야 하고, 동사는 뒤에 다른 부가성분-예를 들어 결과보

的主要作用在於表示一種目的性爲，一種處置。”

3) 黃伯榮(1996), 魏兆惠(2004) 등 참고.

4) 吳福祥(2003), 蔣紹愚(1997), Chappell(1992) 등 참고.

어, 방향보어, 장소보어 등의 성분을 덧붙여 상태의 변화를 나타낼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초기 ‘給’의 處置용법의 來源을 고찰함에 있어 이런 의미적 요구의 충족여부가 중요하다.

우선 ‘給’의 處置용법은 어떻게 생겨났는지에 대한 기존의 논의를 살펴보자. 石毓智(2006)는 ‘給’의 處置용법이 이중 목적어 구문에서 직접 발전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王建(2004), Chapell(2007) 등은 수혜표지 혹은 사역동사의 과도기 단계를 거쳐 處置표지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먼저 石毓智(2006)는 被動과 處置를 표현하는 ‘給’의 來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紅樓夢》 등에는 (S)+給+NP1(與事)+NP2(受事)+VP처럼 ‘주다’의미를 나타내는 ‘給’가 이중 목적어 구문에 출현하면서 뒤에 다시 동사가 출현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난다. 예를 들면,

- (1) 好姐姐，給我一丸嘗嘗。(《紅樓夢8回》)
(누나! 나에게 하나만 주어 맛보게 해주세요.)
- (2) 不管別人的死活，給了你一口酒吃。(《紅樓夢8回》)
(다른 사람의 죽고 사는 것에 상관없이 너에게 술을 주어 먹게 하겠다.)
- (3) 既這麼說，姨太太給他兩銀子收著。(《紅樓夢50回》)
(이미 이렇게 말했으니 이모할머니는 그에게 은자를 주어 가지게 해라!)
- (4) 你過來，我給你一件東西瞧瞧。(《紅樓夢109回》)
(이쪽으로 와! 내가 너에게 물건을 주니 한번 보시오!)

위의 예문에서 ‘給’뒤의 NP1은 형식상으로는 ‘給’의 與事が 되지만, 의미상 VP의 施事が 된다. 이때 NP2는 VP의 受事が 된다. 예를 들어 예문 (1)에서 ‘我’는 ‘嘗嘗’의 施事이고, ‘一丸’은 ‘嘗嘗’의 受事が 된다. 이런 구조에서 동사 뒤에 나오는 NP2가 앞으로 옮겨가면 피동문이 되고, ‘給’뒤의 NP1이 생략되면 處置문으로 변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았다. 즉 (S)+給+NP1+NP2+VP구조에서 NP2가 생략되면 피동문(S)+給+NP1+VP이 되고, NP1이 생략되면 處置문(S)+給+NP2+VP으로 변한다. 아래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5) 已經好了, 還不給兩樣清淡菜吃。(《紅樓夢58回》)
 (이미 다 되었는데 어찌 다른 음식을 주지 않니?)
- (6) 甚至於不給飯吃。(《紅樓夢100回》)
 (심지어는 밥도 주어 먹지 않게 하였다.)
- (7) 他就說了一個海上方, 又給了一包藥末子作引子。(《紅樓夢7回》)
 (그는 <海上方>에 대해 말하고 또한 한 포의 분말약을 주어 보조약으로 쓰게 했다.)
- (8) 果子也不用擺, 也不敢亂給東西吃。(《紅樓夢19回》)
 (과자를 늘어놓지도 말고 마음대로 음식을 주어 먹게 하지마라!)

위의 예문들은 모두 ‘給’의 興事가 되는 NP1이 생략되고, NP2만 남아 있다. 따라서 예문(5)는 ‘已經好了, 還不給(他)兩樣清淡菜吃’로 고칠 수 있고, 예문(6)은 ‘甚至於不給(他)飯吃’와 같이 바꿀 수 있다. 하지만 위의 예문들은 여전히 處置용법과는 거리가 멀다. 여기서 ‘給’는 여전히 ‘주다’의 미의 동사로 쓰이고 있으며 앞 뒤 문맥을 통해 ‘給’의 興事 즉 간접 목적어가 생략된 것임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또한 예문(7)처럼 ‘給’뒤에 ‘了’가 붙는 경우도 있다. 때문에 石毓智는 이런 예문에서 NP2를 有定성분으로 변화시키고 동사 뒤에 다른 부가성분을 덧붙이면 處置문의 의미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다음과 같이 변환할 수 있다.

- (9) 已經好了, 還不給兩樣清淡菜吃。 → 他給兩樣清淡的菜吃完了。
 (10) 也不敢亂給東西吃。 → 他給東西吃完了。
 (11) 甚至於不給飯吃。 → 他給那碗飯吃光了。
 (12) 又給了一包藥末子作引子。 → 又給那包藥末子作了引子。

위의 예문(9~10)처럼 VP뒤에 결과 보어를 덧붙여 동작의 상태 변화를 나타내게 하던지 혹은 예문(11~12)처럼 NP2를 한정 성분으로 바꾸면 處置 용법을 나타낼 수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론상의 가설과 아래 예문(13~16)에서 보듯 실제 문헌에서 ‘給’의 處置용법의 초기 유형이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이다. 이런 점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먼저 處置文의

유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吳福祥(2003)은 處置문의 유형을 廣義 處置문과 狹義 處置문, 그리고 致使意 處置문으로 분류하였다. 廣義 處置문은 P(處置표지)+O1+V+O2구조로 동사 뒤에 다른 명사성 성분이 출현하며 處置의미가 약하다. 아울러 의미상 다시 處置(給), 處置(作), 處置(到)로 세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工具式에서 유래하였다. 狹義 處置문은 P(處置표지)+O+(X)+V+(Y)구조를 이루며 동사는 의미상 하나의 목적어만을 가지며 處置의미가 강하다. 이런 處置문은 연동문에서 발전하였다. 그리고 致使意 處置문은 사동문과 의미상 비슷하며, 處置표지 뒤의 명사성 성분이 受事보다는 施事に 가깝다고 보았다.

위의 분류에 근거하면 앞서 石毓智의 예문들은 대부분 狹義의 處置文에 속한다. 하지만 필자가 《紅樓夢》, 《兒女英雄傳》 등의 문헌들을 살펴본 결과 초기의 ‘給’의 處置용법은 대부분 廣義의 處置文에 속한다. 즉 ‘給’의 處置용법이라고 볼 수 있는 예들은 동사 뒤에 주로 장소목적어를 동반한다.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13) 你帶了去, 給璉兒放在屋裏, 看你那沒臉的公公還要不要了。(《紅樓夢 46回》)
(네가 데려 가서 璉兒를 방안에 두어라 뻔뻔한 시아버지가 원하는 지 아닌지 봐라!)
- (14) 十三妹道: “那還倒他作甚麼呀? 給他放在盆架兒上罷。”(《兒女英雄傳 9回》)
(十三妹가 말하길 세면대야를 버려서 뭐하려고? 대야를 세면대 받침에 올려놓아라.)
- (15) 老爺待要不接, 又怕給他掉在地下, 惹出事來, 心裏一陣忙亂, 就接過來了。(《兒女英雄傳 38回》)
(老爺가 바로 잡지 않으려 했으나, 땅에 떨어져, 일이 생길까 싶어, 마음이 어지러워 잡았다.)
- (16) “誰把這東西扔在這兒咧? 這准是三兒幹的, 咱們給他帶到廚房裏去。”(《兒女英雄傳 9回》)

(누가 이 물건을 여기에 두었느냐? 분명히 셋째가 그랬을 거야. 우리는 그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자!)

위의 예문들은 모두 明清대에 보이는 ‘給’의 處置용법들로 대부분 동사 뒤에 장소를 나타내는 보어들이 출현하면서 ‘給’뒤에 나오는 대상을 특정한 장소로 이동시킴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 廣義 處置文은 石毓智의 狹義 處置文의 예문들과는 處置문의 유형이 다르다.

이를 통해 볼 때 ‘給’가 ‘주다’동사로 쓰이는 이중목적어 구문에서 간접목적어인 NP1이 생략되면서 ‘給’가 바로 處置표지로 발전되었다기보다는 ‘給’의 다른 용법들의 과도기 단계를 거쳤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 때문에 處置용법으로 쓰이는 ‘給’가 수혜표지나 사역동사에서 발전되었다는 견해가 설득력을 얻는다. 수혜표지나 사역동사로 쓰이는 ‘給’는 모두 ‘S+給+NP+VP’구조에 나타나며 處置용법과 구조적으로 동일하다. 통시적 관점에서 볼 때 수혜용법과 사동용법이 먼저 있고 나서 處置용법으로의 발전이 이루어졌으므로 문헌적 근거역시 충분하다.

아래 표는 필자가 明清대의 북방작품인《醒世因緣傳》, 《紅樓夢》, 《兒女英雄傳》에 출현하는 ‘給’의 용법들의 분포 상황을 정리한 것이다.

‘給’의 용법	《醒世因緣傳》	《紅樓夢80回》	《兒女英雄傳》
受惠	17	21	152
使動	1	43	37
處置	0	1	9
總計	31	112	343

위의 표를 보면 ‘給’는 수혜표지가 가장 먼저 출현하였고, 사역동사로 쓰이는 ‘給’는 청대 中葉이후 《紅樓夢》부터 점차 수량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處置용법으로 쓰이는 ‘給’는 더욱 후대에 발전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處置용법은 수혜나 사동용법보다 다소 늦게

발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혜표지는 ‘주다’동사에서 직접적으로 파생되었을 가능성이 크고, 處置표지는 ‘주다’동사에서 파생되었거나, 수혜, 사역동사의 영향을 받아 파생되었다고 추측된다. 다만 앞에서 보았듯이 ‘주다’동사에서 직접 파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處置용법의 來源이 수혜용법인지 사역용법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王健(2004)은 處置의미를 가지는 ‘給’의 기원을 논의하면서 수혜용법과 사동용법과 모두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이에 반해 Chappell(2006)은 북경어의 ‘給’나 ‘幫’ 등의 동사는 수혜표지를 거쳐 處置표지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⁵⁾

먼저 王健(2004)은 ‘給’뒤의 NP성분이 興事가 아니고, 뒤의 동사의 受事일 때 ‘給’의 處置용법의 기능을 갖는다고 보았다. 또한 사역을 나타내는 ‘給’뒷면의 NP성분이 뒷면의 동사의 시사가 아닐 때도 ‘給’이 處置 용법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즉 ‘給’뒤의 NP성분이 興事에서 受事 혹은 被使動者로 변화되었을 때 處置용법으로 변한다고 보았다. 그 중에서 다음은 수혜용법에서 발전되었다고 보는 예문들이다.

(17) 寶玉笑道: 我認得這風箏。這是大老爺那院裏嬌紅姑娘放的, 拿下來給他送過去罷。(《紅樓夢 70回》)

(보옥이 웃으면서 말하길, 나는 이 연을 안다. 이것은 큰 할아버지 덕嬌紅姑娘이 놓아둔 것인데 가져다가 그 아가씨에게 돌려주어라)

(18) 且說珍、璉、寶玉三人回去, 獨有寶玉到賈母那邊, 一面述說北靜王待他的光景, 並拿出那塊玉來。大家看著笑了一回, 賈母因命人, 給他收回去罷, 別丟了。(《紅樓夢 85回》)

5) Chappell(2006)은 중국어 방언의 대상격 표지(즉 處置표지)는 크게 3가지 연원이 있다고 보았다. 첫째는 ‘拿’와 ‘握’같은 의미의 동사들로 이들은 도구격 표지로 변화된 다음 직접 목적어 표지로 변했다. 이와 將 역시 도구격 표지에서 대상격표지로 변화되었다. 두 번째는 ‘給’나 ‘幫’처럼 ‘주다’의미 동사에서 발전된 것이다. 세 번째는 伴隨格(comitatives)에서 발전한 것으로 閩방언의 ‘共’이나 客家語의 ‘同’의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는 모두 ‘함께’의 의미에서 발전되었다고 보았다.

(珍、璉、寶玉세 명이 돌아갔는데 유독 보옥이 賈母곁으로 가서 한편으로 말하길 北靜王이 그를 기다린다고 하고 寶玉이 賈母에게 가서 그 옥을 내보였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한번 웃고는 賈母가 명령하길, 그를 위해 챙기고, 잃지 마라고 하였다.)

위의 예문에서 ‘給’뒤에 오는 NP성분은 앞 뒤 문맥을 통해볼 때 동사의 施事일 수도 있고 受事일 수도 있다. 즉 예문(17)의 ‘給’뒤에 ‘他’는 수혜 대상인 ‘嬌紅姑娘’을 지칭할 수도 있고, 전달물인 ‘風箏’을 지칭할 수도 있다. 마찬가지로 예문(18)의 ‘他’역시 ‘寶玉’을 지칭할 수 있고, ‘那塊玉’을 지칭할 수도 있다. 王健(2004)은 이런 의미상의 모호함으로 인해 ‘給’가 ‘把’의 기능을 대체하였다고 보았다. 또한 이런 수혜용법에서 발전된 處置용법의 예들은 《紅樓夢》, 《兒女英雄傳》에서는 보기 어렵고, 老舍의 작품부터 많이 보이기 시작한다고 주장하였다. 다음은 ‘給’가 수혜용법에서 處置용법으로 발전되었다고 주장하는 예문들이다.

- (19) 伊牧師給馬家父子和她介紹了一回, 她挺著脖梗兒, 只是下巴頰兒! 和眉毛往下垂了一垂, 算是向他們行了見面禮。(《二馬》)
(伊牧師는 마씨 부자와 그녀를 소개했는데, 그녀는 목덜미를 꺾꺾이 세우고, 단지 아래턱만 까딱하고 눈썹을 아래로 내리면서, 이것으로 인사한 셈으로 쳤다.)
- (20) 拿破崙, 你給媽賠不是沒有? 你個淘氣鬼, 給媽碰倒了, 是你不是? 瑪力看著母親, 跟小狗說。(《二馬》)
(拿破崙, 너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니? 너 말썽쟁이, 니가 엄마를 넘어뜨리다니, 瑪力는 어머니를 보면서 小狗랑 얘기했다.)
- (21) 我打算給你介紹到博累牧師的教會去, 作個會員, 禮拜天你好有個准地方去作禮拜。(《二馬》)
(나는 너에게 소개한 博累牧師의 교회로 가서 회원이 될 것이니 일요일에는 너도 예배를 드려라.)
- (22) 溫都太太到底給早飯端來了, 馬老先生只喝了一碗茶。(《二馬》)
(溫都太太가 마침내 아침밥을 들고 나왔다. 馬老先生은 차 한잔만 마셨다.)

하지만 필자의 판단으로는 위의 많은 예문들 역시 전형적인 處置용법을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왜냐하면 예문(19), (20), (21)같은 경우는 동사가 ‘介紹, 賠不是’ 등 상태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고, 예(22)의 경우에도 ‘給’ 뒤에 ‘馬老先生’이 생략된 것으로 보이는 등 수혜용법의 의미가 잔존한다. 그리고 앞서 보았듯이 《紅樓夢》, 《兒女英雄傳》 등 明清대 문헌에서 ‘給’의 處置용법과 예문(19~22)의 용법은 여전히 차이가 난다.

또한 의미적으로 受惠용법으로 쓰일 때는 ‘給’뒤의 NP2가 도움이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處置용법으로 쓰일 때는 ‘給’뒤의 NP2가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보았다. 따라서 수혜용법과 處置용법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하지만 受惠용법과 處置용법으로 쓰이는 ‘給’字句의 NP1은 모두 의도를 가지고 受惠행위 또는 處置행위를 한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지만 각 용법에서 NP2의 역할이 다르다. 즉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수혜 용법에서의 ‘給’뒤의 NP2 성분은 NP1의 행위에 간접적인 영향만을 받을 뿐 직접적으로 상태변화를 겪지 않는다. 다음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23) 電影票他給你弄丟了。

(너에게 줄 영화 관람권은 그가 잃어버렸다.)

(24) 他給我算錯了。⁶⁾

(그는 나에게 계산을 잘못해 주었다.)

위의 예문들은 ‘給’ 뒤의 與事가 출현하여, NP2가 불이익을 받는 수혜 용법에 속한다. 하지만 여기서 與事인 ‘你, 我’는 ‘弄丟’와 ‘算錯’의 직접 논항이 되지 못하여, 따라서 處置용법과는 다르다. 다시 말해 수혜용법에서는 동작 행위는 오직 NP1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NP2에게 직접적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이런 점이 수혜용법이 處置용법으로 변화되었을 가능성을 저해한다.

따라서 마지막 남은 가능성은 사동용법의 ‘S+給+NP+VP’구조이다. 사동

6) 예문(23~24)는 語法講義(1982)에서 발췌하였다.

구조에서 ‘給’은 사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給’ 뒤의 NP성분은 동작행위의 施事 혹은 當事가 된다. 만약 사동용법에서 ‘給’뒤의 NP 성분이 피사동 사건에 대한 통제성이 약화될 때 ‘給’ 뒷면의 NP는 受事로 변할 가능성이 있고 따라서 處置용법으로 변하게 될 여지가 있다. 다음은 먼저 ‘給’가 사동용법에 쓰이는 경우이다.

- (25) 怎麼拿著主人家的貴米, 多多的做下粥, 給不相幹的人吃?(《醒世姻緣傳 55回》)
(어떻게 주인의 귀한 쌀을 가지고 죽을 쑤어 아무 상관도 없는 사람에게 먹이느냐?)
- (26) 鴛鴦忙令老婆子帶了劉姥姥去洗了澡, 自己挑了兩件隨常的衣服令給劉姥姥換上。(《紅樓夢 39回》)
(鴛鴦은 할멈으로 하여금 유 노인을 씻기고, 자기는 두벌의 평상복을 꺼내 유 노인에게 갈아입게 했다.)
- (27) 我就寫了幾首給他們看看, 誰不是真心歎服。(《紅樓夢 48回》)
(나는 시를 몇 수 써서 그들에게 보게 했다. 누가 진심으로 탄복하지 않겠는가?)
- (28) 回手又把腕上的一副金鐲子褪下來, 給他帶上, 圈口大小恰好合適。(《兒女英雄傳 12回》)
(손을 뺀채 손목위의 금팔찌를 벗겨서 그에게 걸게 하니, 팔찌의 크기가 잘 맞았다.)

위의 예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給’앞의 NP1 성분은 ‘給’뒤의 NP2성분에게 주는 행위를 하고, VP의 행위는 다시 NP2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수혜와 사동의 의미를 동시에 지닌다. 다시 말해 예문(25)의 ‘吃, 穿’과 같은 행위는 결국 피사동주(NP2)의 몸에서 일어나는 것이므로, 피사동주가 일정한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다. 예문(27)의 경우에도 ‘看’은 지각 동사로써, 수혜용법과는 달리 VP가 NP2에 의해서 행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예문(25~26)처럼 앞 절에 ‘多多的做下粥’이나 ‘挑了兩件隨常的衣服’같이 NP1의 구체적인 동작행위의 방법이나 방식이 묘

사되어 있다.⁷⁾ 여기서 NP1은 의도성(intention)을 가지고 있으며, 직접적인 행위를 통해 NP2에게 영향을 끼치므로, 조종 사동(manipulative causative), 즉 處置용법에 가깝다.

더욱이 수혜용법에서는 대부분 유정명사인 사람만이 NP2를 충당하지만, 處置용법의 NP2는 무생 명사가 오는 경우가 많다. 사동용법의 NP2역시 무생 명사가 올 수 있다. 이밖에 ‘處置’의미의 ‘給’字句의 동사는 ‘放, 攔, 掉’와 같이 대부분 상태 동사로 구성되며, 결과보어 등을 가진다. 따라서 處置용법은 수혜용법보다는 사동 용법에 더욱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아래의 예문들을 살펴보자.

- (29) 安老爺、安太太是第一肯作方便事的, 便作主給他留下, 一舉兩得, 又成全了人家, 正叫作勿以善小而不爲! (《兒女英雄傳 32回》)
 (안노인과 안부인은 제일 먼저 일을 처리해주고 그를 머물게 하였는데 일거양득으로 한 가족을 이루게 하고 바로 이것이 착한 일이 작다고 하여 아니 하지 말라와 같다.)
- (30) 老爺待要不接, 又怕給他掉在地下, 惹出事來, 心裏一陣忙亂, 就接過來了。(《兒女英雄傳 38回》)
 (老爺가 바로 잡지 않으려 했으나, 땅에 떨어져, 일이 생길까 싶어, 마음이 어지러워 잡았다.)
- (31) 你有本事給他攔下, 他在上頭就把你幹下來了。(《兒女英雄傳 34回》)
 (네가 능력이 있으면 그를 내버려둬라, 그가 위에서 너를 내릴 것이다.)
- (32) 誰把這東西扔在這兒咧? 這准是三兒幹的, 咱們給他帶到廚房裏去。(《兒女英雄傳 9回》)
 (누가 이 물건을 여기에 두었느냐? 분명히 셋째가 그랬을 거야. 우리는 그를 주방으로 데리고 가자!)

위의 處置용법들은 NP2의 통제성이 매우 약한데, 사동구조에서 사건에

7) Hwei-ling lai(2001)는 이와 같은 용법을 목표표지(perposive marker)로 따로 설정하였다.

대한 주체의 통제성이 약한 경우 NP2는 NP1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이처럼 NP1의 통제성이 강화되고 NP2의 통제성이 약화되는 경우에 處置용법으로 발전될 수 있다. 다시 말해 사동 용법에서 NP2가 피사동 발생에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피사동 사건에 참여하는 것과 달리 處置 용법에서는 피사동 사건에 대한 통제성이 거의 없고, 직접적인 영향만을 받는다. 다음의 예문들은 明清대 이후 ‘給’가 완전한 處置표지로 쓰이는 것들이다.

- (33) 馬威又給他們的酒端來，伊牧師一氣灌下去，還一個勁說：“喝着玩儿。”
(馬威가 술을 들고 나오니, 伊牧師가 단숨에 들이붓고는 줄곧 말하길, 마시며 놀자.)
- (34) 吃完了，瑪力給果碟子遞給大家，問他們要什麼。(《二馬》)
(다 먹고 瑪力은 과일 쟁반을 그들에게 갖다 주고, 무엇을 원하는지 물었다.)
- (35) 小崔用烏黑的手扯了瑞宣一把，給大褂上印上了兩個指頭。(《四世同堂》)
(小崔가 새까만 손으로 瑞宣을 끌어 당기고, 옷옷에 손가락 자국을 남겼다.)
- (36) 大槐樹的綠色照在她的臉上，給皮膚上的黃亮光兒減去一些。(《四世同堂》)
(해나무의 녹색이 그녀의 얼굴에 비추고, 피부의 광이 조금 사라졌다.)

위의 예문들은 ‘給’ 뒷면의 NP2가 모두 무생물 명사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예문(34)에서 문장 앞에 출현하는 ‘給’는 處置표지로 사용되고 동사 뒤에 ‘給’가 다시 출현하는 것을 볼 수 있다.

III. 處置의미의 비교: ‘把’와 ‘給’

把字文은 處置문의 전형으로 將字文과 더불어 唐宋대에 처음 출현하였다. 그리고 唐宋대를 거쳐 ‘將’字 處置문은 점차 쇠락하고 明清대 이후로

는 把字文이 우세를 점하였다. 다음은 把字文의 초기 용례들이다.

- (37) 莫把杭州刺史欺。(《白居易 詩》)
(황주 자사를 괴롭히지 말라.)
- (38) 悠然散吾興，欲把青天摸。(《皮日休 詩》)
(유유히 내 즐거움을 풀며 푸른 하늘을 만지려고 하네.)
- (39) 但願春官把卷看。(《杜荀鶴 詩》)
(춘관이 과거 답안지를 봐주기를 바랄 뿐이네.)
- (40) 不把庭前竹馬騎。(《敦煌變文》)
(앞 마당의 죽마를 타지마라.)

위의 예문들에서 ‘把’ 뒷면에 나오는 NP는 모두 의미상으로 뒤의 동작 행위를 받는 오직 하나의 명사성 성분이 된다. 따라서 이들은 吳福祥(2003)의 연구에 따르면 狹義의 處置문에 해당하며 處置 의미가 매우 강하다.

하지만 明清대에 이르러 ‘把’ 뒤에 나오는 명사성 성분이 뒤의 동사의 當事나 施事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는 處置문의 유형 분류에 따르면 致使義 處置문에 속하는 것으로 시기적으로 狹義 處置문보다 좀 더 늦게 출현하였다. 이런 致使의미를 나타내는 ‘把’자문은 明清시대의 작품에 자주 보인다.⁸⁾ 예를 들어 《醒世因緣傳》，《型世言》에는 把字文이 致使의미를 지니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다.

- (41) 晁源在京中坐監的時節，瞞了爹娘，偷把他住在下處。(《醒世因緣傳 43回》)
(晁源은 수도에서 감옥살이할 때 부모님을 속이고 몰래 그를 기루에 거하게 했다.)
- (42) 可的造化低，把個丫頭又死了。(《醒世因緣傳 80回》)
(무슨 조화로 계집애를 또 죽게 만들었나?)

8) 馮春田(2003) 참고.

- (43) 千萬不可把家中得知。(《型世言 26回》)
 (반드시 집안사람이 알지 못하도록 하라!)
- (44) 如今我特把尼姑聽見,說我們背與他銀子,哄他來。(《型世言 29回》)
 (지금 내가 비구니에게 듣게 하였다. 말하길: 우리가 그에게 銀子를 주어 오게 하라!)

蔣紹愚(2005)는 把字文이 處置의미를 표현하다가 점차 致使의미로 변화되는 추세를 겪었다고 보았다. 앞서 吳福祥(2003)는 處置문이 廣義 處置문 > 狹義 處置문 > 致使意 處置문으로 연속적으로 발전하였다고 보았다. 여기서 특이할 점은 致使의미를 갖는 把字文의 흥행과 ‘給’字 處置문의 사용이 시기적으로 맞아 들어간다는 점이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초기 處置용법의 給字文은 狹義의 處置문으로 바로 발전된 것이 아니라 致使의미가 있는 사동문에서 점차 발전되었다고 보았다. 따라서 ‘給’字 處置문은 사동문에서 致使의미를 갖는 處置문으로 그리고 다시 狹義의 處置문으로 발전되었을 것이고, ‘把’字 處置문은 狹義의 處置문에서 致使意 處置문으로 발전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두 용법의 來源은 각각 다르지만 이 둘은 모두 致使의미를 갖는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진다. 또한 把字文이 致使意 處置문에 쓰일 수 있게 된 점이 給字文이 사동용법에서 處置용법으로 변화하게 하는 환경적 요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래 예문들과 예문(43~44)의 把字文은 서로 대응된다.

- (45) 千萬別給老太太、太太知道。(《紅樓夢 52回》)
 (절대로 老太太와 太太가 알게 해서는 안 된다.)
- (46) 姑娘少坐,等我請個人來給你見見。(《兒女英雄傳 7回》)
 (아가씨는 잠시 앉아계세요. 제가 사람을 데려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 (47) 這是怎麼說? 你快說給我聽!(《兒女英雄傳 12回》)
 (이게 무슨 말이냐? 너는 빨리 나에게 얘기하거라!)

다만 把字文은 전형적인 處置文에서 致使意 處置문으로 쓰이면서 의미

상으로도 변화가 있었다. 예를 들어 明代이후 處置의 범위를 벗어나 일종의 불행이나 불유쾌한 사건의 나타내거나, 어떤 상황이 부주의하여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사용되었다. 이는 把字文이 완전히 處置의 의미를 벗어나 쓰이고 있는 예이다. 《紅樓夢》에서 이런 용법이 많이 발견된다.

- (48) 誰知接接連連許多事情，就把你忘了。(《紅樓夢 26回》)
 (많은 일들이 자꾸 생겨서 너를 잊어버릴 줄 누가 알았겠어?)
 (49) 把姑娘的東西丟了。(《紅樓夢 73回》)
 (아가씨의 물건을 잃어버렸어.)
 (50) 先把太太得罪了。(《紅樓夢 74回》)
 (먼저 마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어.)
 (51) 偏把風丫頭病了。(《紅樓夢 76回》)
 (하필이면 저 봉저 계집애가 병이 났어.)

위의 예문(48~49)은 부주의로 인해 일어난 사건에 쓰였고, 예문(50~51)은 불행이나 불유쾌한 사건에 쓰였다. 이때 쓰이는 동사는 자동사 또는 處置를 표현하지 않는 타동사들로 전형적인 處置용법의 동사와는 거리가 멀다. 특히 예문(50~51)의 ‘把’뒤의 NP는 處置의 대상이 되는 受事가 아니라 當事로, 致使의미를 갖는다. 이런 상황은 모두 비의지적 處置용법에 해당되는 것으로 明清대 處置용법으로 쓰이는 給字文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 ‘給’의 이런 용법은 현대 중국어에서야 찾아 볼 수 있다. 徐丹(1992)은 다음과 같은 예문들을 열거하였다.

- (52) 小王給筆丟了。
 (샤오왕이 연필을 잃어버렸다.)
 (53) 小王給鑰匙鎖在屋裏了。
 (샤오왕이 연필을 방안에 두었다.)

明清시대 處置용법으로 쓰이는 給字文의 일반적인 특징으로 NP1과

NP2가 모두 유생 명사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把’의 原義가 ‘잡다, 쥐다’로 ‘把’뒤의 NP2가 무생 명사가 오는 것에서 발전된 것에 비해서 ‘給’은 수여동사이므로 뒤에 유생 명사인 사람이 오는 것이 자연스러웠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의 예문처럼 ‘給’뒤에 NP2가 무생 명사가 출현하면서 불유쾌하거나 부주의한 상황에 나타내는 것은 ‘把’字文보다 늦게 출현하였다.

IV. 결 론

지금까지 處置를 나타내는 給字文의 來源에 대해 재검토해보고 합당한 결론을 도출하였다. 給字文은 수혜용법보다는 사동이나 致使의미를 거쳐 處置의미를 나타내게 되었다. 즉 사동, 致使의미를 나타내는 給字文에서 ‘給’뒷면의 명사성 성분이 施事나 當事를 거쳐 受事로 변화되는 과정을 거쳤다. 더구나 處置의미를 나타내는 給字文의 발전은 把字文의 발전과의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把字文은 狹義의 處置문에서 致使意 處置문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거쳤다. 이와 반대로 給字文은 사동, 致使의미를 가지다가 處置文으로 발전되었다. 이는 給字文이 致使의미를 가진 處置구문으로 변화할 수 있는 내외적인 환경이 되었을 것이다. 다만 把字文은 전형적인 處置용법에서 변화되어왔고, 給字文은 사동, 致使의미에서 변화되었으므로 서로 다른 의미적 특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明清대에 給字文은 불행한 일이나 부주의하여 생긴 사건 등에는 쓰이지 않았다.

< 參考文獻 >

- 朱德熙, 《語法講義》北京: 商務印書館, 1982.
 王建, <給字句表處置的來源>, 《語文研究》第4期, 2004.
 石毓智, 《語法化的動因與機制》,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6.

- 馮春田, 《近代漢語語法研究》, 濟南: 山東教育出版社, 2000.
- 王力, 《漢語史稿》, 科學出版社(1958)
- 吳福祥, <再論處置式的來源>, 《語言研究》第3期, 2003.
- 蔣紹愚, <把字句略論——兼談功能擴展>, 《中國語文》第4期, 1997.
- _____, 《近代漢語研究概要》, 北京: 北京大學出版社, 2005.
- 徐丹, <北京話中的語法標記詞“給”>, 《方言》, 1992.
- 李煒, <清中葉以來使役“給”的曆時考察與分析>, 《中山大學學報》第3期, 2002.
- 張敏, <空間地圖与語義地圖上的「常」与「變」: 以漢語被動、使役、處置、工具、受益者等關係標記爲例> (打印稿), 2008.
- heine & kuteba(2002) *world lexicon of grammaticaliz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thephanjana, S.uehara(2008) *the verb of giving in thai and mandarin chinese as case of polysemy: a comparative study*, language sciences 621-651.
- Andy C. Chin(2011) *gramaticalization of the cantonese double object verb [pei 35] 𠵼 in typological and areal perspectives*, language and linguistics 3집.
- Hilary Chappell (2007) 漢語方言的處置標記的類型 《語言學論叢》 36集.
- Huei-ling lai(2001) *on hakka bun:a case of polygrammaticalization*, language and linguistics 2輯.
- Xu Dan(2005) the status of marker gei in mandarin chinese, journal of chinese linguistics 22.2:363-394.

<中文提要>

現代漢語中的“給”字句除了可以表受益，給與，使役，被動以外，還可以表處置。對於“給”字句表處置的來源，已有不少學者探討過，但還沒有令

人滿意的結論。本文通過明清時期文獻的調查，梳理了“給”字句的幾種用法的關係，並探討了“給”字句表處置的來源。其結論是，“給”字句表處置不是來源於表受益的“給”字句，而是來源於表使役的“給”字句。使役或致使與處置之間在意義上具有相同的地方。並且通過表處置的“給”字句與“把”字句比較，顯示兩個句式的處置意味的差異。這種差異是由它們表處置的來源不同而造成的。

주제어 : 給字句, 受益, 處置, 使役, 致使